

합성섬유 시장 회복세

93년 세계수요 1.4% 증가 ... 폴리에스터 주도

합성섬유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계 합성섬유 시장은 93년에 161만8000톤 수요로 1.4%의 수요증가율을 나타내 회복기미를 보인후 94년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시장 중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93년에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102만2000톤의 수요로 93년대비 3.6%의 수요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특히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활발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94년에도 합성섬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시장 역시 수요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유럽의 폴리에스터 분야 역시 수요증가율 정체를 보이고 있다.

아크릴섬유 시장은 93년 22만9000톤 수요로 92년대비 3%의 수요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대수요처로 등장해 활발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94년은 소폭의 수요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일론 역시 미국시장에서 12만1000톤 수요로 92년대비 4%의 수요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에 36만2000톤에 그쳐 92년대비 1.4% 감소했다.

세계 합성섬유 시장현황(단위 : 1000M/T, %)			
구 분	1992	1993	증감률
아 크 린	2,363	2,294	▽3.0
나일론·아라미드	3,674	3,621	▽1.4
폴 리 에 스 터	9,769	10,125	3.6
기 타 섬 유	157	142	▽9.5
합 계	15,963	16,182	1.4

<화학저널 1994/9/26>